

# 蜂針療法の基礎理論 및 各症別治療法④

高 相 基 / 韓國蜂針療法研究會 會長

전호에 계속

## 4-2-4. 음위증(陰萎症)

음위증이란 남자의 성기능장애를 말한다. 즉 음경이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된다 해도 삽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서 성교불능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간은 남녀간에 성교를 통해서 오르기증이라는 열기로 채워져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성에게 성교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필요한데 이런 기능을 우리는 양기(陽氣)라고 하는 것으로, 양기가 없는 상태를 흔히 '임포' 또는 음위증(陰萎症)이라고 한다.

원래 양기란 기능(機能)을 말하며 크게는 정신의 기능과 힘을 말하고, 작게는 음경(남자의 생식기)의 발기와 기교를 뜻한다.

어떠한 원인으로 음경의 발기가 되지 않거나 된다고 하더라도 성교시 삽입이 안될 정도로 힘이 없을 때 음위증이라고 한다. 음위증의 원인은 여러가지이나 그 중에서도 첫째가 기질적인 원인으로 음경의 기형, 결손, 혹은 척추의 손상 등으로 오는 경우이고,

둘째는 기능이나 기질적으로 이상이 없는데도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로 여기에는 육체적인 피로나 허약체질 또는 알콜중독, 그 외 약물중독 등 그 외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불능일 수가 있다.

셋째로는 정신적인 원인으로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 성에 대한 공포심, 열등감, 죄의식 등의 성에 대한 자기인식은 음위증을 유발한다.

요즘 미국에서 개발되어 선풍적인 인기와 화제를 불러일으킨 '비아그라'도 일시적인 효과일 뿐 음위증치료제는 아니다. 음위증이나 양기부



고상기회장

족, 성기능장애 등의 제 증세에 대하여 봉침, 특히 봉료(蜂療)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질환에 속한다.

봉독(蜂毒)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그 외 수십종의 성분작용에 의한 혈관확장작용, 용혈작용, 신경계활성작용 등에 의해서 발기력을 도와주고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화분 등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군과 고단백질 등의 작용에 의해서 육체의 만성피로, 과로나 모든 성인병으로 인한 자연적인 성욕감퇴에서 오는 남성의 양기부족, 음위증, 성기능발육부족, 성신경쇠약 등이 치료된다.

치료에는 로얄제리 3cc(1일 3회), 프로폴리스 3cc(1일 3회), 꿀 30cc(1일 3회), 화분 10g(1일 3회)을 장복하고, 봉침치료는 기본치료법에 의해 치료한 다음, •명문(命門) •양관(陽關) •기해(氣海) •관원(關元) •기충(氣衝) •음곡(陰谷) •하삼리(下三里) •삼음교(三陰交) •음포(陰包) •음염(陰廉) •중극(中極) •신유(腎俞) •복유(復溜) •곡골(谷骨) •황유(肓俞) •대혈(大赫) •상료(上膠) •중료(中膠) •차료(次膠) •하료(下膠) •장강(長強) •회음(會陰)

## 4-2-5. 항문병(肛門病)

항문병에는 치핵(痔核), 항문열상(肛門裂傷), 치루(痔瘻), 탈항(脫肛), 항문주위염(肛門周圍炎) 등이 있다.

①치핵(痔核) = 치핵은 항문 및 직장의 치정맥(痔靜脈)의 울혈로 인하여 생기는 일종의 정맥류(靜脈瘤)로서 치핵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외치핵(外痔核), 내치핵(內痔核)으로 나뉜다.

외치핵은 항문의 피부에 생긴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내치핵은 직장항문(直腸肛門)의 점

막에 생기는 것이므로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항문의 주위나 직장의 아랫부분은 잘 발달된 그물눈과 같은 정맥(靜脈)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항문 부분은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거나 기다, 변비, 천식, 임신, 부인과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울혈을 일으키기 쉽고, 이 울혈에 오랫동안 지속하면 정맥벽(靜脈壁)은 탄력성을 잃게 되고, 드디어는 파열되고 확장됨으로써 치핵을 만든다. 치핵을 일으키는 유인(誘因)으로는 알코올의 과음, 다량의 깍연, 자극성 식품의 섭취, 만성변비, 항문 등을 차게 하거나 순환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 있는 경우 발병하기 쉽다.

외치핵은 항문 밖으로 암적색(暗赤色)의 부드러운 치핵이 보이거나 내치핵은 보이지 않는다. 크기는 콩알만한 크기에서 손가락끝 정도의 것이 한개 또는 여러개 생긴다. 내치핵이 외치핵보다 크고 가렵고, 출혈이 있으며, 이물감(異物感)이 있다. 배변시 몹시 아프고, 치핵 안의 정맥에 염증이 일어나 혈전(血栓)이 생기면 더욱 아프다.

②항문열상(肛門裂傷) = 항문피부와 점막의 경계부에 생기는 열상 또는 궤양을 말한다. 항문열상의 원인은 변이 굳든가 항문에 습진이 있을 때 잘 벌려지지 않는데 무리하게 배변하려고 할 때에 일어나기 쉽다. 또한 하반신을 차게 하거나 폭음, 폭식, 음주, 깍연도 유인이 될 수 있다.

증세가 가벼운 경증일 때에는 배변시에 얇은 열상(裂傷)이 생기거나 열상이 심하면 격통을 일으키고 출혈한다. 아픔 때문이 항문이 반사적으로 경련하고 따라서 배변을 두려워하게 되고 변비를 일으킨다. 통증이 방광으로 퍼져서 방광 괄약근의 경련을 일으키면 소변을 볼 수 없게 되고 생식기, 척골부, 대퇴부에 통증이 퍼지면 걸어도 날 수도 없다. 항문을 벌려보면 열상상태를 간단히 알 수 있으나 항문주위염과 구별하여야 한다. 심해지면 항문주위염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때로는 치핵을 합병하기도 한다.

③치루(痔瘻) = 항문 주위에 누공(瘻孔)을 만들고 이 누공을 통하여 적은 양의 고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만성치루가 되는 불유쾌한 병이다. 원인으로는 항문주위 농양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오래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가장 많고 때로는 직장(直腸) 끝의 점막을 통하여 세균이 침입하여 농양을 만들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결핵환자에서 결핵균이 항문 주위로 침입하였을 때도 생기며 이 밖에 매독균, 임질균, 성병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누공(瘻孔)을 통하여 악취 나는 고름이 흘러나와 속옷을 더럽힌다. 또 이 고름이 누공 주위에 피부염을 일으켜 가려울 때도 있다. 그러나 심한 통증은 없고 배변시 약간 아플 때도 있다. 그러나 누공이 막혀서 고름이 고이면 부어오르고 열이 나고 몹시 아프다.

④탈항(脫肛) = 탈항은 점막이나 직장의 일부가 항문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말한다.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선천적인 유인으로는 치핵을 겸하지 않은 순수한 탈항은 소아에 많은데 이것은 직장이나 항문을 지지하고 있는 조직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또 대장간막, 직장간막이 길거나 선천적으로 직장의 지지조직이 이완된 사람에게 흔히 일어난다.

후천적인 유인으로는 습관성 변비증이나 급, 만성 장 카다르 등으로 너무 복압(腹壓)을 가하게 되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밖에 치핵, 복부종양, 항문이나 직장의 플리프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탈항은 대개의 경우 배변시에 일어나고 배변 후에는 자연히 또는 지압(指壓)으로 정복(整復)된다. 그러나 치핵을 겸한 경우나 심한 탈항에서는 몹시 아프고 출혈이 일어나며 정복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항문이 탈출된 상태가 그대로 오래 되면 점막이 마르고 궤양을 만든다.

⑤항문주위염, 항문주위 농양 = 이 병은 항문이나 그 부근에 화농성 세균이 감염되어 일어나는 장, 특히 직장에는 세균이 대단히 많을 뿐 아니라 항문 주위의 점막은 상처가 생기기 쉬우므로 감염될 기회가 많다. 화농균은 항문 열상 직장의 외상 궤양 및 장의 이물(異物), 심한 관장으로 인한 상처를 통하여 침입한다.

치료에 있어서는 먼저 봉침기본치료법으로 치료한 다음, •백회(百會) •신주(身柱) •대장유(大腸俞) •요유(腰俞) •장강(長強) •승산(承山) •천추(天樞) •관원(關元) •족삼리(足三里) •위유(胃俞)에 시술하고, 그 다음에 치핵(痔核)일 때에는 치핵머리에 직접 치침한다. 다음 하루밤 자고 나면 내치핵(內痔核)까지 전부 밖으로 나온다. 그때 눈에 보이는 치핵 전부를 자침한다. 치료기한은 빠르면 10회, 늦어도 30회 내외에서 치료된다.

다음 치루(痔瘻), 항문열상(肛門裂傷)은 치루 주위와 열상 주위를 산자(散刺), 그외 탈항(脫肛)과 항문주위염일 경우에는 항문의 팔약근에 집중적으로 산자한다.

#### 4-2-6. 대하증(帶下症)

대하증이란 것은 자궁 질부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이 이상적(異常的)으로 증가하여 외음부나 그 부근을 적시는 것을 말한다. 흔히 “냉이 흐른다”고 말하는데 냉이라는 말은 대하를 잘못 말한 것으로서 한방(韓方)에서 대하증은 몸이 냉해서(차서) 생긴다고 인식한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하증은 병이 아니고 증세이며 생리적인 경우와 병적인 두 경우가 있다.

##### 1) 생리적인 대하

①전정부(前庭部) 분비물 = 성적 흥분시에 나오는 것으로 외음부에 있는 바로톨린선에서 주로 나온다.

②질(腔) 분비물 = 질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질점막세포가 정상적으로 약간 분비하며 빛깔이 희다. 또 노쇠한 질세포가 떨어져 나와 용해되어 이것과 합쳐져서 나오게 된다.

③처녀시절 월경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결혼시까지 보통은 대하가 없으나 간혹 월경 2~3일전에 사람에게 따라 약간 있는 경우가 있다.

④성교 전후에 정신적인 흥분으로 외음부의 땀샘 바로톨린선 등에서 우유빛 분비물이 흘러내려 음경의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질에는 정상적으로 질한균(腔旱菌)이 번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질 내부는 항상 강한 산성(酸性)을 나타

내고 있으며, 이러한 강한 산성 때문에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침입하여도 번식할 수 없게 된다.

##### 2) 병적대하

생리적으로 여성의 질부나 외음부는 축축하게 적시는 정도로 소량의 분비물이 흘러나온다. 빛깔은 맑고 투명하며 약간 끈끈한 감이 있으나 월경주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정상적으로 여성의 분비물은 냄새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분비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많거나 빛깔이 이상하거나 악취가 나면 병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①양이 많아진 경우 = 기능성(機能性)으로 오는 경우, 즉 대하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양이 많은 경우이며 난소호르몬 관계로 인하여 발생된다.

②냄새가 나는 경우 = 여성 성기에서 나는 냄새는 장미꽃 냄새가 정상이며 이러한 냄새가 악취로 변해서 나는 냄새의 원인으로 즉,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분비물, 정액 등이 분해해서 나는 악취와 병원균의 번식으로 인한 악취, 암으로 인하여 나는 악취 등 그 종류에 따라 냄새가 특유하다.

③색이 변한 경우 = 질이나 자궁경관, 자궁내막 등에 염증이 생기거나 기생충이 번식하면 분비물이 많아지고 색이 우유빛, 누런 담황색, 피빛 등으로 된다. 암이 생겼을 때도 양이 많아지고 냄새가 나며 피고름 등이 나오게 된다.

④가려운 경우 = 분비물의 양이 많아지며 외음부가 축축해지고 가려워지며 또 트리코모나스, 곰팡이 등이 번식하면 더욱 가려워진다.

⑤질염(腔炎) = 질은 강한 산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산성도가 떨어져서 병원균이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킨 경우이다. 이 때에는 대하의 양이 몹시 많아지고 빛깔이 누렇게 변하며 거품이 섞이고 국부가 몹시 가렵다.

⑥자궁경관염(子宮頸管炎) = 아이를 낳을 때 생긴 상처가 낫지 않거나 혹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자궁입구에 염증이 생기면 자궁경관염을 일으킨다. 잘 낫지 않고 분비물이 많아진다.

⑦자궁내막염(子宮內膜炎) = 자궁 내부에 염증이 생긴 경우, 특히 급성일 때는 고름 또는 피

가 섞여나오고 악취가 풍긴다.

이상과 같이 병적인 경우에는 필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먼저 기본치료법에 의하여 치료한 다음, •관원(關元) •중극(中極), 곡골(谷骨), 대혈(大赫), 대거(大巨), 대맥(帶脈) •족삼리(足三里) •신주(身柱) •신유(腎俞) •지실(志室) •대장유(大腸俞) •차료(次膠) •음곡(陰谷) •음염(陰廉) •축빈(築賓) •삼음교(三陰交) •회음(會陰) 등에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내음술, 외음술, 질입구, 질 등에 봉침을 산자한다.

#### 4-2-7. 편도선염(扁桃腺炎)

인두(咽頭)의 점막의 염증과 함께 주로 구개편도(口蓋扁桃)에 심한 염증이 있을 때를 편도선염이라 한다. 원인으로서는 연쇄상구균(連鎖狀球菌)의 감염으로 생기는 일이 가장 많다. 그 외에 포도상구균(葡萄狀球菌) 또는 바이러스도 관여한다. 냉각, 피로, 과음, 과식, 감기, 기침, 코의 수술 후, 상기도(上氣道)의 급성염증 등이 감염의 유인(誘因)이 된다.

증세로는 갑자기 오한, 고열이 나고 전신권태, 두통, 사지통, 기타 인두(咽頭)에 건조감(乾燥感)을 느끼며 인두통 때문에 침이나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려워지고 말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

입안에서는 나쁜 냄새가 나고, 구개편도가 단순히 붉어지고 부어 오르기도 하고, 하악각부(下顎角部)에 있는 임파선(淋巴腺)이 커지고 아프다. 때로는 통증이 귀(耳)로 뻗치는 경우도 있다.

치료에 있어서는 안정을 취해야 하고 유동식을 섭취한다. 기원균(起源菌)이 대부분 연쇄상구균이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를 계속 복용하고 프로폴리스 회석물로 양치질을 하여 인두를 깨끗하게 해준다.

봉침은 ①기본치료법으로 시침하고, ②•인영(人迎) •천장(天鼎) •협차(頰車) •족삼리(足三里) •소상(少商) •천주(天柱) •풍지(風池) •견정(肩井) •견중유(肩中俞)에 시침하고, ③환부의 압통점(표피부)에 발침하여 시침하고, 환자의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양쪽(입안)에 있는 편도에 발침하여 시침한다.

#### 4-2-8. 좌골신경통(요통, 디스크)

좌골신경통(坐骨神經痛)은 좌골신경간(坐骨神經幹)이 시작되는 하부요추(下部腰椎)와 천추(遷推; 선골(仙骨), 선추(仙椎))와의 사이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통(腰痛)과 좌골신경통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통과 좌골신경통은 병명(病名)은 따로 구분되어 있으나 병리학적 소견에 있어서는 요추와 천추 사이의 추궁관(椎弓管) 속에 있는 마미신경(馬尾神經) 또는 추간공(椎間孔)에서 척추(脊椎) 밖으로 뻗어나오는 신경간 주행로(神經幹 走行路)에 부분적인 손상 또는 압박증상(壓迫症狀)을 일으켜 해당 신경주행로 또는 분포구역(分布區域)에 동통, 마비 등의 감각이상(感覺異常)을 나타내는 병이라는 점에서 서로 관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통 및 좌골신경통의 근원적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한마디로 요통 및 좌골신경통은 요추와 천추부의 요천신경총(腰薦神經叢)을 내는 마미신경(馬尾神經)과 요천신경총 및 신경간주행물에 어떤 원인으로 신경이 압박을 받는 것이 지각이상(知覺異常)을 나타내는 증상이다.

그러나 신경압박을 일으키는 원인은 그 종류도 많고 부위(部位)와 정도(程道)의 차이도 복잡하기 이를데 없다. 동양의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신(腎) 및 방광(膀胱)의 허증(虛症)으로 보는 경향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1)추체이상(椎體異常)에서 오는 것
  - ①추간판(椎間板) 헤르니아(디스크)
  - ②추간판변성(椎間板變性)
  - ③황인대비후(黃靱帶肥厚)
  - ④인대이완(靱帶弛緩)
  - ⑤척추분리(脊椎分離)
  - ⑥척추급준(脊椎急峻)
  - ⑦골조송증(骨粗鬆症)
  - ⑧기타 척추이상(脊椎異狀)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

다음호에 계속